

## 금요 양성 2026년 1월 2일 회개와 식별

### 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

새해를 맞이하며,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의 회개에 주목하고, 그 회개가 우리 자신의 회개에도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묵상해 본다.

성 프란치스코의 훌륭한 전기를 읽어본 적이 있다면, 프란치스코의 삶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에 따른 여러 단계의 회개 과정이 있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. 초기 양성의 식별 기간동안이나 또는 서약회원들이 자기 성소의 강화를 추구하고자 할 때, 프란치스코 성인의 회개와 성소 과정에 일어난 사건들을 깊이 생각해 보고 그 사건들이 자신의 회개와 성소 과정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.

도움이 되도록, 다음에 제시되는 회개 과정의 단계들을 성 프란치스코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, 이어서 그것들이 여러분 자신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.

- **열림으로 이끌수 있는 어두움** (질문과 모호함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.) [생각해 볼 것: 기사가 되고자 했던 프란치스코의 소망, 안절부절못함, 감옥에서의 시간, 병과 꿈들]
- **경청과 듣기** (기도) [생각해 볼 것: 프란치스코의 나환자와의 만남, 어떻게 가난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게 되었는지, 로마 여행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답을 기다림] -꿈속에서 들은 계시, 산 다미아노 십자가로부터 들은 계시, 고독속에서 주님께 경청하였던 시간
- **따르기로 선택함** [생각해 볼 것: 프란치스코는 진정한 자신의 신부가 가난 부인임을 깨닫는다. 산 다미아노 십자가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. 꿈속에서 “누구를 따르고 싶으냐? 종이냐? 주인이냐”라는 소리를 듣는다. 성녀 클라라와 실베스텔 형제가 은수자가 되기보다 설교자가 되는 것이 옳다는 조언을 해준다]
- **우리의 결정과 행보를 강화시켜주는 표지들** [나환자와의 포옹, 로마에서 걸인과 옷을 교환함, 산 다미아노 십자가에서 음성을 듣는다]
- **새로운 방향 찾기** [위에 열거한 모든 것들이 그를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. 그는 “재건설”과정을 시작한다.]
- 접점과 기준점으로서의 **그리스도/복음의 삶**
- 이러한 새로움 속에서 **지지를 발견**
- **믿음으로 걸어감** [“주님이 나에게 형제들을 주셨다...”]
- 어두움속에서도 **신뢰함**
- 열림으로 인도할 수 있는 **어두움**
- 회개는 영속적인것이므로, 우리는 “**다시 시작하여**” 정상으로 돌아온다.

출처: **FUN** 프란치스칸 운동 1부 “프란시스의 여정” Jan Parker, OFS 저

위에 열거된 요점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,

- + 자신의 삶과 현재의 내가 되도록 해 준 삶의 타임라인에 대해 생각해 보라.
- + 자신의 성소식 별의 길은 아주 순탄했는가?
- + 살면서 부딪친 어려운 일들은 극복하도록 성령은 어떻게 도와주었는가?
- + 자기의 삶에서 아직도 작업과 기도가 필요한 영역은 어떤 것들인가?

## 저널쓰기와 형제회나 양성 그룹에서의 나눔을 위하여

성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찾고 있습니까? 여기에 몇권을 추천해 봅니다.

-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: 수난, 가난, 그리고 가톨릭 교회를 변화시킨 사람 By Bret Thoman OFS 저 (초기 등급)
-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: 전기 Omer Englebert 저
- 프란시스: 여정과 꿈 Murray Bodo O.F.M. and John Michael Talbot 저 (초기 등급))
- 아시시의 프란시스: 중세 성인의 삶과 사후 André Vauchez 저